

## 새로운 시간표 (창세기 12:1-4)

뜻깊은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란다. 다시 한번 언제든지 확인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이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대한 답이다.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세상에는 없다. 지나간 일을 뒤집을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복음은 가능하다. 해결정도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가 미래의 발판이 되도록 뒤집는다. 발판이라는 단어는 답이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답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야 한다. 좀더 현상적이고, 약간 더 공격적인 표현이다. 귀중한 복음이 우리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 또는 현재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래의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믿고 끝낸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은혜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이런 증거를 볼 수가 없다. 고백하고 누리고 잡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한다. 잘 안될 수도 있다. 안된다 해서 멈추면 안된다. 다른 데로 가서도 안된다. 답은 이것 하나 뿐이다. 여하튼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판내야 한다. 복음이 이렇게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복음이 이렇게 되어 지도록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다. 기도와 관계된 가장 대표적 단어가 누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굉장한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앞에 나타내야 한다. 육신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개인적이라면 예배는 근본적이다. 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 가장 먼저 새롭고 더 깊은 시간표가 예배에 있기를 바란다. 개인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사실은 예배때 최고의 은혜를 받고 말씀받고 그렇다.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배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오기 바란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능하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앞으로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 여기 저기 앉아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면 여기에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마찬가지이다. 금요일예배에도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는 가정도 있다. 분명히 오늘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 있다. 그것이 분명히 오늘은 이유가 된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이거 알아야 한다. 목사 가정에 보면, 저 양반 참 이상한데 아이들 축복받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것이 목회 잘 안된다는 것인데, 목회 안되면 목사가 예배 기도 이런데 더 신경써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서. 육신적이든 말든 기도해야 하고 예배 해야 한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아버지는 별로이지만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평신도도 할 수 있는가? 예배 기도 성실히 해야 한다. 기도하기 싫은 때 많다. 그냥 자고 싶다. 그냥 자면 얼마나 편하나? 그것이 그 날은 이유가 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속은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배 마찬가지이다. 오기 싫을때도 있다. 버릇처럼 오게 되어 있는 것도 축복이다.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깊은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언약이 진짜로 이해가 되고, 이것이 정말로 답이고 저주에서 해방이야, 이것이, 그래서 그 언약잡고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것이 영적 준비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방법으로 하신다. 말씀도 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신다. 너무나 인생이 간단한테 그것을 안하니까 복잡해지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 말씀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잡고 예배 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 노력없이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된다. 왜냐면 은혜니까. 그러나 그것은 한번씩 그렇게 해야지, 항상, 그렇게 되면안된다. 증인되려면 그런방법으로는 안된다. 힘들어도 기도하라. 하기 싫어도 기도 해라. 하고 나면 한것이고 안하면 이유가 뭐든지 안한 것이다. 마음에 담기 바란다.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2부 예배 무시하지 말라. 솔직히 이야기 하면 2부예배나 수요일예배나 금요일예배에 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잘 못한다. 시간이나 헌식 때문에. 여기는 말씀을 던지는 자리라면, 2부나 수, 금요일예배는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자리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겠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기도가 깊다, 인생이 깊어지겠는가? 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해보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것에 답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안하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뭔가 다른것에 먼저 생각이 가 있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미국교회에 전달해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연구는 많이 안하지만 내가 20년 살면서 느끼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 개인주의사상이다. 인권이야기 하는 사람 많이 있다. 인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 그런 권리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뜻 아니냐. 그런데 인권이 인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통과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위아래 올려놨다. 굉장히 악한 일이다. 미국의 개인주의, 이런것들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있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권리 있다. 그러나 이 것 하다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버린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사로 예배를 빼버리는 것이다. 뭐 일이 있으면 예사로 예배를 빼버린다. 근본 사상이 뭐냐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중요하다. 옆집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다. 그건 사람끼리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과 사람사이에서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부터 알아놨버렸다. 우리는 절대 이길 따라가면 안된다. 롬넬트들도 따라가면 안된다. 학교에서는 공부하다가 일어나서 화장실가도 괜찮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화장실 갔다와서 끝까지 앉아 있어야 한다. 예사로 벌떡 일어서서 간다. 왜? 내가 가고 싶으니까. 이 사상이다. 자기가 기준인가? 그러니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예배가 기준이다. 언약잡은 기도가 기준이다. 2부, 수요일도 중요한 예배이다. 근본적인 것중에 몇가지를 말씀 드렸다. 2023년 이런 부분에서 변화있기를 바란다.

### 1. 새로운 시간표

원단 1강 들어보면 마지막 기도의 세가지 단어가 나왔다. 첫째, 새시간표 나왔다. 그리고 영적 준비 나왔다. 그리고 능력의 증인 나왔다. 그 중의 한 단어를 잡았다. 새해니까 새로운 시간표이다. 늘 있던 시간표이다. 새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새것을 만들면 안된다. 하나님이 그것이라 한 것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새해니까 그것을 새롭게 잡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해를 받은 우리의 말씀이다.

본문은 창세기 12:1-4절인데, 1강 본문이 보면 행 2:1-4이다. 그 언약을 잡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잡고 가야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이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너 거기로 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충만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전에도 같았지만 이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늘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응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생 참고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 시간표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모세 시대에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시간표였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었다. 그 때에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간다고 말만했어도 광야에서 안 죽었다. 열심히 안해도 된다. 그냥 질질 끌려가듯 따라만 가도 가는 것이다. 만일 밤새도록 울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한참 울다가 일어나서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랬으면 그 사람, 응답 받았을 것이다. 분명히 나도 생각해 보니 이건 힘들다, 죽을 가능성이 많아도 그래도 간다 했으면 응답 받는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시대에는 미스바운동이 이 시간표였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운동을 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메시지는 누가 블레셋을 이기고 싶냐? 그러면 나의 시간표는 미스바운동이다. 블레셋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미스바운동을 하라. 이것이 내 시간표이다. 여기에 내 응답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운동을 한 사무엘이 살아 있는 것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이 잡은 언약과 깨달음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언약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인생 살아야 한다. 이런 인생을 살라고 성경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것이 답이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아마 더 빠른 것이다.

내 인생을 보면 그렇다. 경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가 무료투약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다. 그런데 응답 안되서 그만뒀다. 그런데 일년 후 복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은 잘 알고 있었다. 보통 평신도 보다는 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다. 내 혼자 생각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데, 복음은 몰랐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 성경을 말하지 복음은 말하지 못했다. 가르친다고 한다. 사실은 증인이 필요한데 복음을 모르니 증인이 안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년 후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니가 만일 돈을 해결해줬으면 니가 무료투약하는 곳에 가서 뭐할거냐? 무슨 내용이 있냐? 그 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응답이 시작되었고 기도는 전에 하던 기도에도 10분의 일밖에 안한다. 10분의 일도 안될 수도 있다. 30초 안에 모든 기도 끝내기도 한다. 그래서 놀아도 된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기도 안하게 된다. 온데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듣고 논다. 일도 반박에 안하고 놀았다. 그래도 응답 더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슬슬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몇 번 말했듯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다. 그 때 깨달은 것이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는 것도 은혜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복음 전해 사람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증인 되려면 누려야 할 것 아니냐? 이 증거 없으면 아직 반쯤은 티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변화를 주셨는데, 그러던 중, 세계 복음화가 들어왔다. 미국, 남미, 다민족, 렘넌트는 그 전에 주셨고, 세계 복음화 들어오면서, 그렇다 미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처럼 읽게 되었다. 니가 복음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려야 하지. 그러면 응답 달라고 할게 아니라 복음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승리해야지. 그리고 니 인생을 거기서 끝낼거냐? 세계 복음화 할거 아니냐? 니가 왜 미국에 있어? 이게 들어온 것이다. 똑같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큰 인생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시간표, 소원을 깨닫는데에 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계획이 뭘까?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 알수 있다. 우리가 메시지 중에 늘 듣는 근본 말하는 단어가 있다. 네피림. 귀신 문화이다. 명상등을 통해 정신적 영향을 주는 것에 주력을 하는 시대이다. 정신은 조금만 잘못되면 귀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정신 바로 옆에 이 수많은 귀신들이 바로 옆에 포진해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영적 문제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문제는 꼭 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이 주신답은 뱀의 머리를 깨야 해결된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장 근본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다. 바깥으로는 조용하고 나이스하다. 속으로는 굉장히 악하다. 이것이 미국이다. 전 세계에 이 사단을, 힘이 있으니까 계속 전달하고 있다. 여기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올해의 시간표이다. 전일부터 시간표였다. 새해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표이다. 죽을때까지 다른거 보면 안되고 같은 것을 매일 새롭게 보고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 24시를 한다는데, 그것은 되어지지는 않고,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기도 한번 하면 일년이라도 효과가 가고 그래야지. 1월 1일 기도하고 12월 31일까지 놀아도 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이 건 24시 맨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되어 버리면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이 시대의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하여 살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우리 인생의 응답이 있다.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사도바울도 그랬다. 여기에 우리 자녀의 성공이 있다. 여기에 너의 인생의 치유, 영적, 육적 치유가 있다. 니가 성경적 전도의 제자가 되고 싶냐? 너 진짜 성경적 전도를 하고 싶어? 사역자 중에 이런 사람 많이 있다. 정말 너의 밑에 제자들을 붙여줘서 조직전도가 일어나기 바래? 그러면 니가 뭘 원하는가 그것을 잡아라. 니 산업에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냐? 니가 이 부분에서 한 시대의 증인 되기 원하냐? 시대적인 증인되고 싶다면 니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만드냐? 니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니가 원하는 땅, 니가 가야 할 곳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다. 거기서 우상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우리는 이런 미국의 흑암을 깨고 미국을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교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남미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다. 당연히 남미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되어지면 남미는 더더욱 되어진다. 왜 미국

에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 2세들은 내 나라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니 부모가 왜 여기 와서 너를 여기서 낳았는가를 이야기 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남미를 한번 더 가야 한다. 이것이 올해의 시간표이다. 늘 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새롭게 잡기 바란다. 여기에 237, 치유, 서미이 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응답 정복이 여기에 있다. 정복하는 산업, 전도자 되고 싶냐? 여기에 맞춰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잡아야 할 구체적인 기도제목이 있다. 100팀 100지교회이다. 남미에 이 복음운동을 할 200명의 목사제자들이다. 이 사람들 움직이려면 돈 좀 필요하다. 산업인들이 이것 잡고 기도하기 바란다. 미국에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든다. 있으니까. 100지교회. 적어도 100개 지역에서 이 운동을 할 교회를 찾는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2. 영적 준비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의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이 먼저 이 영적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영적 준비를 했다. 개인적 영적 준비와 함께 시대를 두고 하실 하나님의 일, 사명을 준비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성전에서 살았다. 언약계 옆에 누워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언약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 체결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미스바 운동 전개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두고 한 실질적인 영적 준비였다. 그 때에도 그는 걸먹는 어린양을드렸다. 그 때 하나님이 언약을 받으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군대를 박살냈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너도 언약을 준비하라. 너의 대적을 박살내겠다. 요셉도 받은 꿈이 언약이 되었다. 그 언약잡고 깊이 누림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창 39:2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모든 일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응답받는 것이다. 결국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총리가 되었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다. 수많은 예가 성경에 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만난 첫날,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로마를정복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서 왔다. 원리는 똑같다. 이것을 잘 안하는 것이 문제고, 그 이유중에는 발견이 안되서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끝났다고 해서 언약계 옆에서 배운 언약을 끊었을 리가 없다. 미스바 운동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언약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요셉도 총리 되고 세계살린 이후에 그 꿈을 버렸겠는가? 여전히 그의 언약이었을 것이고, 그 기도의 중심이었을 것이다. 당연히 사도바울도 그렇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붙렸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준비를 해야 할지 분명하게 답이 나왔다. 원단 1장에서 근본을 바꾸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미국에 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 발견해야 한다. 잘 안보일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도 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된다. 이것이 영적 준비이다. 그러면 그만큼 응답받을 것이다. 옛날에 쓰던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미국에 사니까, 그리스도, 미국, 남미 끝까지 가야 하니까, 그리스도 남미, 위하여 렘넌트 운동해야 하고 다민족 일어나야 하니까, 그리스도 렘넌트, 다민족,

2023년 두고 새로운 이 시간표에 하는 나의 영적 준비 아주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되어져도 매일 시도해야 한다. 고백은 할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수 있다. 이것을 매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약속된 것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반석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약속하신대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했으니 믿습니다. 열쇠를 주신다고 했으니 내 인생의 모든 문을 열도록 축복해주시옵소서. 매일 해야 한다. 항상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미국을 향한 미스바 운동 하나님이 주신다. 미국을 두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준비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밀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이 해야 한다. 큰 인생이 여기에 있다. 미리 정복하고 싶다면 이 영적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끝난 것이다. 미리정복.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이 운동안에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새해에 많은 응답받고 정말 성경적 응답 받는 증인 되기 바란다.